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 즉시

## 한-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 대화 시동

- 중소기업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13일(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 【 한-일 중소기업 국장급 정책대화 개요 】

- (일시 / 장소) '24.5.13.(월) 09:30 /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 (참석자)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장, 글로벌창업팀장, KSC 도쿄 소장 등  
경산성 스타트업정책국장, 신규사업창조추진실장(과장급) 등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 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수민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고건호 (044-204-755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